

2021년 2학기 계량경제학연구 -Okui Ryo

설 문 내 용	결과	전체
1. 이 과목 또는 강좌를 수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필수과목이기에	13(54%)	24(100%)
(2) 듣고 싶은 다른 과목이 선수과목이어서	2(8%)	
(3) 지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6(25%)	
(4)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8%)	
(5) 학점을 잘 준다고 해서	0(0%)	
(6) 명강의로 소문나서	0(0%)	
(7) 재수강	1(4%)	
2. 출석을 어느 정도 하였습니까?		
(1) 1/4 미만	0(0%)	15(100%)
(2) 1/4 이상 2/4 미만	1(4%)	
(3) 2/4 이상 3/4 미만	0(0%)	
(4) 3/4 이상 그러나 몇 차례 결석	0(0%)	
(5) 거의 100%(거의 매번 출석)	14(58%)	
3. 이 과목을 수강하면서 얼마나 공부하였습니까? ((1)-(3)은 수업 출석률이 낮은 경우)		
(1) 거의 공부하지 않았다	0(0%)	15(100%)
(2) 시험 때만 하였다.	0(0%)	
(3) 과제와 시험이 있을 때만 하였다.	3(13%)	
(4) 대체로 수업을 열심히 들었지만 예습복습은 거의 하지 않았다.	3(13%)	
(5) 수업을 열심히 듣고 예습복습을 비교적 철저히 하였다.	9(38%)	
4. 강의의 내용 및 진행은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같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1(4%)	15(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0(0%)	
(4) 대체로 그러했다.	4(17%)	
(5) 매우 그러했다.	10(42%)	
5. 사용된 교재, 참고문헌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1(4%)	15(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0(0%)	
(4) 대체로 그러했다.	6(25%)	
(5) 매우 그러했다.	8(33%)	
6. 과제 및 시험은 강의 내용의 이해와 심화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1(4%)	15(100%)
(2) 그렇지 않았다.	1(4%)	
(3) 그저 그러했다.	1(4%)	
(4) 대체로 그러했다.	3(13%)	
(5) 매우 그러했다.	9(38%)	
7. 강의 내용은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1(4%)	15(100%)
(2) 그렇지 않았다.	1(4%)	
(3) 그저 그러했다.	1(4%)	

	(4) 대체로 그러했다.	5(21%)	
	(5) 매우 그러했다.	7(29%)	
8.	교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질문, 면담, 게시판, e-mail)를 제공받았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1(4%)	15(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그저 그러했다.	3(13%)	
	(4) 대체로 그러했다.	5(21%)	
	(5) 매우 그러했다.	6(25%)	
9.	과제의 분량은 적절했습니까?		
	(1) 너무 적었다	0(0%)	15(100%)
	(2) 적은 편이었다.	1(4%)	
	(3) 적절했다.	4(17%)	
	(4) 많지만 할만했다.	8(33%)	
	(5) 너무 많았다.	2(8%)	
10.	강의 내용의 난이도와 본인의 이해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너무 쉬웠다.	0(0%)	15(100%)
	(2) 쉬운 편이었다.	1(4%)	
	(3) 적절했다.	2(8%)	
	(4) 어렵지만 할만했다.	7(29%)	
	(5) 너무 어려웠다.	5(21%)	
11.	교수님의 강의속도와 강의내용의 분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매우 느슨했다.	0(0%)	15(100%)
	(2) 느슨한 편이었다.	1(4%)	
	(3) 적절했다.	1(4%)	
	(4) 빠빠하지만 할만했다.	7(29%)	
	(5) 너무 빠빠했다.	6(25%)	
12.	이 과목의 수강을 다른 친구 및 후배들에게 추천하겠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1(4%)	15(100%)
	(2) 그렇지 않았다.	1(4%)	
	(3) 잘 모르겠다.	4(17%)	
	(4) 대체로 그러했다.	2(8%)	
	(5) 매우 그러했다.	7(29%)	
13.	실습 또는 연습시간(TA session)은 유용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4(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잘 모르겠다.	2(14%)	
	(4) 대체로 그러했다.	6(43%)	
	(5) 매우 그러했다.	6(43%)	
14.	담당교수는 유능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았다.	0(0%)	14(100%)
	(2) 그렇지 않았다.	0(0%)	
	(3) 잘 모르겠다.	1(7%)	
	(4) 대체로 그러했다.	4(29%)	
	(5) 매우 그러했다.	9(64%)	

전체

기타 건의사항

- 비디오 녹화본을 통해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이 학교를 학부, 대학원 다니는 동안 들었던 모든 강의 중 역대 최악을 꼽으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강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아니 사실 그냥 최악인 것 같네요.

전필이라서, 혼자시때문에 강제로 듣게 된 강의지만, 교수님은 그냥 한 학기 내내 의욕 없이 ppt를 읽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좋지 않은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ppt를 읽어나가니, 매시간 강의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계량 수업이라 학생들이 질문으로 수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요구하면, 교수님은 필기를 할 펜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지 수식을 알아보기 힘든 형태로 느릿느릿 타이핑했습니다.

수식 부분은 그렇게 읽거나 타이핑하며 대충 넘어가놓고 시험에서는 '당연히' 복잡한 행렬계산이 나온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스로도 수업이 'heavily math oriented'라고 얘기했고, 수업에 수식이 많으면 수식은 손으로 써주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외에도 수업 운영에 이해 안가는 것 투성이었지만,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들이 개인, 혹은 비밀 채팅으로 질문을 하면, 보통 다른 교수님들은 다른 학생들도 볼 수 있게 전체 채팅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거나, 질문의 내용을 알려주고 답을 하는데, 이 교수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그 질문을 속삭이듯이 빠르게 읽으며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답을 툭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질문이 뭐였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한 학기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공개적으로 질문하기를 극도로 꺼려하는 'shy'한 대학원생들의 잘못도 있겠네요.

한 학기 동안 정말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기에, 학점이라도 잘 줬으면 그나마 남는 거라도 있을텐데, 학점도 그냥 칼같이 잘라준 것 같습니다.

경제학부가 석박통합과정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코스웍을 강화한다며 1년차에 석, 박사 전필 6개를 몰아넣고 듣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혼자시라는 이유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를 왜 하필 인생에서 다시는 들을 일이 없었으면 하는 최악 수준의 강의였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정말 이 교수님이었어야만 했나 하는 생각을 학기내내, 그리고 학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며, 저는 이 교수님, 이 강의 때문에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